

테마칼럼

광안과 민생

문화의 양기

디자인 세상

파라바 경영

참을 수 없는 디자인의 가벼움



이난경

5공화국이 탄생시킨 프루야구에 열광하는 사람들과 6공화국의 88올림픽경기장이 나란히 공존하는 현장에서 디자인의 존재는 참을 수 없이 가볍게 느껴진 하루였다.

세계인의 디자인축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난 10일 개막한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이 어제 막을 내렸다. 왜 서울의 행사 이야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행사의 취지를 알고 나면 수긍이 갈 것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이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서울을 디자인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자인도시 서울을 홍보하고 자축하기 위해 만든 행사다. 광주도 최근에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디자인 광주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줄여 광주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선 디자인으로 앞서가고 있는 서울의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이 우리의 삶 속에 공기처럼 존재한다(Design is Air)'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디자인 컨퍼런스, 전시회, 디자인 공모전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불꽃놀이와 가수의 축하공연도 포함해서. 행사의 성공은 숫자로 말한다고, 이 행사에도 5만 여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2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한다. 나도 그 200만 명 중 한명으로서 지난 주말에 전시장을 둘러봤다. 20년 전 서울올림픽의 영광을 기억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의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미로에 갇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들이 정돈되지 않고 각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혀 놓은 것 같은 느낌. 역설적이게도 아름답지 않은 공간을 디자인으로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5공 시절 정치권은 여론을 다른 뜻으로 돌릴 목적으로 3S(Sports, Screen, Sex)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시정 앞에 잔디광장(겨울엔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한다)을 만들고 청계천 인공개천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청계천에 워터스쿠린 설치, 반포낙하산수 설치(제한한 공무원이 특권했다) 등 화려한 불빛과 불거리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기에 바쁘다. 몇몇 언론에선 '서울시장의 재선용 행사'라느니 '74억들인 행사가 사인은 A4용지'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뽑아가며 비판한 곳도 있었지만 시민들에게 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특히 올림픽이란 행사명에 핵심 내용인 디자인공모전의 수장작과 출품작들은 참신한 아이

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고 시민투표로 수상작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점은 행사의 취지와 수준을 높여주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 바람이 있다면 행사에 들어간 예산의 일부라도 수상작들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데 사용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드넓은 운동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과 미로 같은 경기장의 구조 속에서 관람객의 동선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지 못한 것이 옥에 티였다. (사실 다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온 것도 많았다) 이런 것은 준비기간의 부족 탓이기도 하지만 내내에도 같은 장소에서 '나는 디자인한다(Design)'를 주제로 '서울 디자인올림픽 2009' 행사를 한다니 개선이 될 건지 두고 봐야겠다. 전시장을 나서니 쌀쌀한 밤공기를 가르며 함성이 들려왔다. 아들이 내려앉은 잠실별 한쪽엔 프루야구 코리안시리즈의 열기가 뜨거웠다. 5공화국이 탄생시킨 프루야구에 열광하는 사람들과 6공화국의 88올림픽경기장이 나란히 공존하는 현장에서 디자인의 존재는 참을 수 없이 가볍게 느껴진 하루였다. <광주여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하라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행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어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된 것이다. 광주·전남을 비롯 비수도권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전방위적이다. 산업단지에선 대기업도 내년 3월부터 공장을 전면 신·증설할 수 있다. 산업단지 아닌 곳에서 공장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 제한이 크게 완화됐고 공장 총량제 적용 대상도 대폭 줄어들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무늬만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포장했을 뿐 지난 26년간 지탱해온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해선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과밀억제권이나 성장관리권까지 규제가 완화된 마당에 광주·전남으로 이전할 기업은 없다.

25개 첨단업종은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최대 2배까지 증설을 허용했다.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어 시작단계에 있는 지방의 첨단산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광주·전남 첨단산업 종사자 3천 800여명과 생산액 3조8천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구차스럽게 짝이 없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경제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경제위기를 핑계로 '선(先) 지방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슬그머니 폐기한 것은 지방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통합 없이 경제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찢긴 마당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부추겨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지방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대, 언제까지 등록금에 의존할 건가

사립대학들이 전체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해 293개 사립대의 재정상태를 조사한 결과, 총 수입 가운데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 55.4%에 달했다. 사립대의 재정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심각하다. 순천의 명신대는 의존율이 95.8%에 달했고 80%를 넘는 곳도 상당수였다. 대학 살림살이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만큼 재정상태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사학재단의 전입금 확보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높은 등록금 의존율에 비해 장학금은 '쥐꼬리' 수준이다. 장학금 지급 비율은 등록금 수입의 3.4%, 학비 감면 비율은 12.8%에 불과했다. 상당수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학생 지원에는 인색한 것이다. 열악한 재정은 등록금 인상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 2008학년도 기준 학생 1

인당 평균 등록금은 대학 738만원, 전문대 589만원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각각 6.7%, 7.3% 인상된 것으로 불가인상률을 훨씬 상회했다. 의학계열의 등록금은 평균 936만원으로 연간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예고했다. 등록금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해마다 치솟는 바람에 서민가계를 위협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은 '연례행사'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대학은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재단 전입금 등 투자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사립대의 열악한 재정은 구조적인 문제다.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근본적 개혁 없이는 등록금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학도 경쟁사대인 만큼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소를 없애고 수익사업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단의 교육목표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안병현. 파란 옛 언덕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었다. 마을 중심에 큰 우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낙들이 일하기 편하게 한쪽이 돌담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런데 가려진 벽 중앙에 두 뿔 크기의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었다. 바로 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 동네 아낙들에 대화를 엿듣고 우물가에서 회자되는 민심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늘 마음을 열고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웃어른들의 지혜로움이 느껴졌다. 이렇듯 상대와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기관을 통해 들리는 소리를 소리 그 자체로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다. 상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열심히 들어야만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고 들으려 노력해도 아는 만큼 밖에 얻을 수 없는데 점점 개인주의적인 생활태도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소통의 필요성조차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열심히 자기 말만 해대고 허공에 공허한 메아리만 가득한 세상에서 두 평조그만 내 진찰실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께 좀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그렇지 못하면 정말 정력검사실이라도 설치해야 하는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 같다. 소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한옥 마을 우물가로 초청해 시원한 물 한 바가지라도 대접하고 싶다. <안병현·백준 이비인후과 원장>

기고 우제길. 대인시장은 광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장(場)이다. 흐르는 세월 속에 모든 상업 수단들이 현대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면서 우리의 옛 장터, 대인시장은 쇠퇴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시민들은 현대화된 대형 마트로 발걸음을 돌렸고, 용기종기 사는 맛을 느끼는 대인시장은 낡은 도심 속 풍경으로 덩그러니 남겨졌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텅 빈 대인시장에 다시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게 예술인과 관람객들이 앞서 대인시장을 찾겠다는 것이다. 2008 광주비엔날레 '제안' 색션의 하나로 대인시장에 마련된 '북덕방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를 찾은 수많은 관람객이 서둘러 찾고 있는 명소가 됐다. 참여 작가는 물론 그곳 상인들까지 환영하고 있다. 삶을 호흡하는 미술세계를 이해하면서 대인시장이 작가들과 함께하는 예술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인가. 삶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미술터가 몇 사람의 작가와 기획자에 의해 시작됐다다가 이제는 한결을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선 것이다. 대인시장의 성공은 예술이 특정인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좋은 예를 만든 셈이다. 대인시장 선술집에는 미술작품이 걸려 있어 취객들이 삶과 미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또 버려진 공간에 채색이 되고, 그 위에 작가의 작품이 그려지는 등 볼거리도 매우 야 할 것이다. 대인시장을 개발한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국 '베이징의 798'처럼 광주만이 갖는 소박하고 독창적인 곳을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예술은 삶이며, 삶은 곧 예술이다'라는 독일 작가 요셉 보이스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문화수도 광주를 재출문화상품이 없다는 걱정이 많다. '광주의 삶'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때문에 나온 우려다. 평가 거창한 사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광주의 정서와 생활이 묻어있는 공간에 살짝 문화의 옷을 입히는 것도 소중한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대인시장의 성공을, 행사가 끝나면 잊어버리는 추억으로 치부하지 말고, 광주의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제길미술관장, 서양화가>

3G 휴대전화, 고객서비스 향상 힘써야

3G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영상통화가 도중에 끊긴다거나, 화면이 불안정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동통신사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영상통화가 음성통화만큼 자유로워지면 기존 회선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야 가능하다고 털어놓고 있다. 필자도 최근 3G폰을 구입했는데 얼마 전부터 통화 중에 전화가 자주 끊겨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휴대전화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고,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지점을 방문하니 3G폰이 원래 그렇다며 연말쯤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 기본요금 정도만 나오던 휴대전화 요금에 영상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5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연말까지 휴대전화를 안 쓸 수도 없고, 다른 제품을 새로 구입할 수도 없지 않은가? 3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3년간 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술개발보다는 기본인 통화의 질과 문자전송부터 제대로 평가해 하지 않을까? 또한, 가입자들을 많이 모집해 제품을 파는 데만 열중할 게 아니라 고객서비스에 더 신경 써야한다. <심이동·광주시 북구 중흥동

외출 시 반드시 애원견 인식표 부착을

공원을 산책하다보면 덩치 큰 맹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그 옆을 지나갈 때면 '혹시 물어봐 여짜'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애원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요즘 애견인들의 에티켓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주로 애원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나왔다가 번을 치우지 않고 거가거 목줄을 풀어서 체 개를 산책시키는 경우가. 특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올해 초 한층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즉, 소유자가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 착용과 함께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또 애원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을,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을 방치하면 10만 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애견센터나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했으면 한다. 애견인들 역시 이를 잘 기억해줬다가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우현·광주시 남구 방림동

無等鼓. 영에서는 상반된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이른바 '밴드왜건(handwagon)'과 '언더독(underdog)'효과 논란이다. 오바마 측에서는 앞선 지지율로 승리 가능성이 큰 후보(밴드왜건)에 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매캐인 진영에서는 뒤진 후보(언더독)를 동경하며 숨어있는 백인 유권자들이 일제히 나서 첫 흑인 대통령 당선을 저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 대선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진정성도 심판대에 올랐다. 지금까지 줄곧 앞서왔던 오바마가 승리한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여론조사의 위력을 수긍할 것이다. 반면 매캐인이 이기면 '과학'보다 경우에 따라 사람의 심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오바마는 매캐인이든, 과학이든 사람의 마음인데,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